

차대통령 언급 없어... 노선도 착공시기도 '안갯속'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2단계 사업 어떻게 되나

1일 호남고속철 1단계 구간(광주 송정~충북 옥송) 개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젠 2단계(광주 송정~목포) 사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1일 1단계 개통식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은 2단계 노선이나 완공 시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개통식 축사에서 "호남선에 철도가 개통된 지 한 세기 만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시대를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열게 됐다"며 "우리가 만든 호남고속철도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국토 균형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광주·전북 등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교류와 기업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호남경제는 커다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연 전남지사는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내달 1일 호남고속철 개통식 때 분명한 언급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말씀을 안 하시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 표시를 크게 기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개통식 때 신선이나, 기존선 개량이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선KTX는 2단계 구간이 조속히 완공돼야 명실상부한 고속철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단계 노선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전남도가 견제자를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 경우와 관련해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광주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합평에서 지선화해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이나 기존선 개량이나

무안공항 경우 여부 놓고

국토부·전남도·기재부 이견

또한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중 43.9km는 신선(新線)을 놓고, 33.7km는 기존선을 보강해 활용하는 주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합평에서 무안공항까지 16.6km만 신선을 놓고 광주 송정~나주~목포 구간은 기존선을 보강해 활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는 국토부, 전남도 안대로라면 2조4731억원, 기재부안대로라면 1조3427억원이 소요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대와 달리 대통령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는 '2015 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호남고속철이 개통하는 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역에서 관광객 유치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용산역 현장에서 지역 국제행사 및 시·군별 축제 포스터를 전시하고, 철도 이용객 및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배포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국민 보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상화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109) 침묵

"만일 내 그림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그림을 매개로 그들과 소통하는 순간이다."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추상화를 보고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림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을까?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 (1903~1970)는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인간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게 할 수 있는가"에 예술의 의미를 두었다. 유대 출신 로스코는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비극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답게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비극적 정서에 동화되기를 원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마크 로스코 회고전'이 화제다. 전람회를 다녀온 주변의 몇몇은 숨 막힐 듯 밀려드는 격정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다는 소화를 들려준다. 그 작품 앞에서 눈물 흘리지 못했던 나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림 앞에서 잠시 부끄러워졌다.

로스코의 작품 '무제(레드)'(1970년)는 그가 자살 직전에 남긴 그림으로 화염이 몰아치는 듯한 주홍빛이 마치 화장터의 불길을 연상케 한다. '피로 그린 그림'이라고도 불린다. 로스코는 미술입문 초기부터 다양한 미술 운동이나 장르의 융광로와도 같았던 미국화단에서 빛겨나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한다. 리얼리즘, 초현실주의시기를 거쳐 색채로 규정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림 자



마크 로스코 작 '무제'(1970년)

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색면 회화에 파고들게 된다. 색면의 크기와 색채의 농도를 수없이 조합시키면서 여러 색면의 층들을 켜켜이 덮고 또 덮었다.

미술사학자 사이먼 사마교수(컬럼비아대)는 저서 '파워 오브 아트'에서 로스코의 예술세계를 한마디로 "말없이 그저 절절한, 색채와 감정의 드라마"로 규정할 바 있다. 로스코의 작품 앞에서 그 절절함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핵심 비켜간 U대회 보고회

문체부, 문화·관광·출입국 등 범정부 지원책 발표 차대통령 참석...남북 3대 이벤트 추진 의지 보여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첫 광주 U대회 보고회에서 성공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지원 어떻게=문체부가 이날 밝힌 범정부 지원책은 문화·관광, 교통·출입국, 안전·보건, 홍보 등 크게 4가지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국립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와 지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해외 마케팅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먹을거리 안전확보와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전한 대회 준비 등에도 발빠

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체부는 대회 일정이 음식물 등의 부패가 빠른 여름철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용료 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손님맞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FISU 임원 등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국민 홍보 강화와 입장권 판매에도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기업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남은 숙제는=대회 흥행의 핵심 키는 남북 단일팀 구성과 미너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응원단의 참가, 판문점 성화봉송 등 남북 3대 이벤트의 성사 여부다. 이중 남북 단일팀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대회 조직위는 북한응원단과 판문점

성화봉송에 올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민들은 박 대통령이 첫 참가한 이번 보고회에서 북한응원단, 판문점 성화봉송 등 대형 이벤트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별다른 언급없이 보고회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쉽다는 분위기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북한과 관련한 이벤트의 성사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한 대회 운영비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저비용·고효율 경제대회를 선언한 U대회 조직위는 FISU와의 끈질긴 협상으로 사업비 1300억원을 절감하고, 100%마케팅 권리를 확보하는 등 비용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10억원 안팎의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운영비 부족은 대회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져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이 요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